

방언, 그 고정된 생각으로 잃은 시간들

작가 에세이

공옥동

광주문협 상임부회장
사)서은문병란문학연
구소 창립회장



국립한글박물관이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사투리는 못 참지!'라는 흥미로운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인데 그야말로 심박하여 방언의 말맛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한곳에 모아 놓아 그 의미가 크다. 이 자리에는 전국 8도 방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영상, 서적, 녹음 기록, 사진 등 관련 자료들이 모국어어를 사랑하는 이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과학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면서 정보통신과 이동 수단들도 여제를 옛날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문화 간 섞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방언 간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방언을 모으고 한글로 남겨두는 것 자체가 언어 문화를 보존하는 일일 것이다.

방언은 그 지방의 고유한 의사소통이자 언어다. 통상적으로는 한 언어의 변종 정도의 의미를 주며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50여 년 전 처음 빛고을에 발을 디뎠을 때 자못 당황했다. "오빠야 니가 그랬냐? 언니야 이것 좀 해봐라. 워메 정헌거, 자네가 그랬어?" 등등 깜짝 놀랐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이게 무슨 대화란 말인가. 특히 '자네'는 같은 전라도인 내 고향 전주에서는 2-3년보다 아래 후배에게나 사용되는 호칭으로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일 때, 그 사람을 높여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다. 이 반말 대화들의 거부반응은 꽤 오래도록 불량품 귀이개처럼 귀를 괴롭혔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광주사투리에 흠뻑 젖어들어 산다. 잘 닳아 반질반질해진 목기(木器)를 아무란질 때처럼 내 손

때가 묻어있는 정다운 말들이 내 언어의 방을 빼곡히 차지하고 있다. 이젠 낯익은 공명뿐만이 아니라 시각과 촉각도 약간씩 참여하는 광주 땀말도 자연스레 구사하며 아껴 쓴다.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50여 년을 살았으니 정다움으로 받아들여도 손색없을 세월이 아닌가. 주로

정보 전달이 목표인 표준어보다 오랜 세월 그 고정된 특색을 담아 이해와 배려 속에 자라 온 사투리는 그 지역의 혼이 담겨있다... 언어에 우열이 없듯이 방언에도 우열이 없다. 사투리는 독립적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자연 언어로서 그 지역의 독특한 생활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정감이 있는 언어이다.

정보 전달이 목표인 표준어보다 오랜 세월 그 고정된 특색을 담아 이해와 배려 속에 자라 온 사투리는 그 지역의 혼이 담겨있으리. 겸손이 부족했던 시절 불만으로 구겨 넣어 버렸던 다정다감한 대화의 보물들을 주머니마다 하나둘 털어내어 본다. 이렇게 발견한 사투리들은 가끔 내 줄시의 지적 효과를 극대화시켜주기도 하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질감을 가져올 수도 있지 말아야 한다. 알아들어야 할 의무감이 없을 때 모든 사투리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알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자신에게 익숙지 않은 사투리는 젊은 날의 나처럼 반감의 매개체로 받아들여지기도 할 것 같아서이다. 사투리의 반대말은 표준어이다. 공인이라면 반드시 표준어를 익혀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황동규 시인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여

러분이 농사를 짓거나 특정 지역서 조그만 장사를 한다면 표준어를 배우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공인이 되려거든 표준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강의했다.

그건 표준어란 한 나라가 법으로 정하여 놓은 언어 규범에 맞는 말이며 한국어 규정에도 공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뿌리를 두었을 것 같다. 하지만 황동규 시인도 시골 여행의 즐거움 가운데 뽀농을 수 없는 것이 그 고장의 사투리를 마음 놓고 듣는 일이라고 한 걸보면 그 역시 누구보다도 사투리를 사랑하는 사람임이 틀림없다. 언어에 우열이 없듯이 방언에도 우열이 없다. 사투리는 독립적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자연 언어로서 그 지역의 독특한 생활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정감이 있는 언어이다. 그러니 간혹 정치권에서 사용하여 다듬는 8도 사투리 재해석에 무슨 우열이 있겠는가. 저마다의 지역구 사정을 대변하고 있는 언어일 뿐이다.

어린 날 뜨거운 국물 마시며 "어험 시원하다!"하는 어른들의 말이 아리송하여 "정말 시원할까?" 궁금하던 어릴 적 생각이 난다. 한마디로 열 마디 상황을 대변해 주는 진땀진땀한 봄나물 무침 같은 빛고을 사투리를 백발소년이 되어서야 무릎 치며 웃음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 고정된 틀 안에서 선비처럼 물 마시고 이쑤시며 양반임내 하고 끈대 곰땀이를 자칭했노라는 나의 고백에 고장이 고향이신 ㅈ선배께서 나도 그랬노라고 너털웃음 웃으며 선술집으로 가는 길을 잡으며 말씀하신다. "어야, 싸먹거리지 말고 싸게 싸게 오랑개 얼렁 후딱후딱 안 오면 나겠은 없다잉" 나는 운동화 끈을 다시 묶으며 큰소리로 외친다. "아따 금방 따라간당께요. 그란디 나는 짜간만 먹을라요." 내친 김에 선배님 모시고 '사투리는 못 참지!' 특별전에 가봐야겠다.



기고 | 문지원 광주 고실중 1년 학부모

광주교육 '학자협치학교'에서 배우다

꼬마 아이가 어색한 포즈로 서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독립기념관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날짜가 적혀있지 않아도 그 당시에 갔던 여행의 즐거운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때는 아이가 너무 어려 그곳이 어디인지 모를 것 같은데 사진 속 자신의 어렸을 적 모습을 보며 시간을 되짚어 보는 모습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 중학생이 된 아이와 언제 이렇게 가깝까 하는 마음으로 망설임없이 지원하였습니다.

그 때의 여행이 모두 기억나지 않지만 유독 독립기념관을 갔던 것을 아직도 기억한다는 것은 8살 꼬마에게 엄청난 감동이었기에 그 때의 감정을 다시 꺼내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게 버스에 몸을 싣고 지난 5월11일, 2024 광주교육 학부모 자녀 협치학교 '자녀와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출발합니다.

20여 분의 버스를 타고 내린 곳은 광주 북구 중외공원 안의 시립미술관 옆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풀내음이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안중근 의사상과 송모비였습니다.

그렇게 자주 다녔었던 이곳에 평소 존경하는 위인이었던 안중근 의사의 애국혼이 깃든 동상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며 우리 지역의 가까운 곳에 숨은 국립현충시설의 존재를 이제야 알았음에 무지한 자신을 탓하고 이렇게 좋은 곳을 찾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역사를 하찮게 여기

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25년간 사라졌던 전국제1호 안중근 의사 송모비의 전모 등 처음 듣는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심으로 이제부터라도 잘 기억해 두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전남도의 서재필기념관, 생생한 태백산맥의 문학관, 백범 김구 선생 은거지 등 독립운동가의 발자취와 문학의 배경지를 다니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을 아무리 잘해 놓아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잘 정리된 기록을 기억하려고 애쓰는다면 그 기록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유적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 한 번쯤 방문하여 기억하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는 이번 탐방으로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배운 것 같아 뿌듯했고 빛나는 역사의 현장 속에 내가 살고 있는 빛고을을 광주가 '지켜냄의 역사'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인지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방 광주답게 문학과 독서가 일상처럼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이런 경험을 망설이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상상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신청하시라고 감히 추천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의 '학자협치학교'는 이번이 제1회로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실종정보문자' 작은 관심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발언대

김동은

광주경찰

여성청소년과 경사



25일은 '세계실종아동의 날'이다.

1979년 5월25일 뉴욕에서 Etan Patz라는 6세 아이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실종아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확대와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실종아동의 날을 제정하고 관련행사를 매년 열어 실종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실종아동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사전등록제도와 실종정보 문자제도 등이 있는데, 실종자 찾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종자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찾기가 쉽지 않아 국민의 관심과 제보로 찾게 되는데, 경찰청은 2021년 6월부터 '실종정보 문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보문자에

는 대상자의 키, 몸무게, 옷차림새 등 특이사항이 있고 해당 링크를 누르면 대상자 사진, 주소, 관할 경찰서와 전화번호가 있는 실종아동찾기 블로그에 연결된다.

실종정보문자는 실종자를 발견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되며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인데, 시행 이후 많은 실종자가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가면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광주광역시에 발송된 실종정보문자 송출대상자 105명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실종정보문자를 본 시민들의 제보로 인한 발견자가 54명이나 되어 실종자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실종신고가 증가하는 이 무렵, 같이 늘어나는 경보문자를 받게 되어 불편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시민들의 제보가 실종자를 찾는 데 큰 역할을 하기에 내가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

'3대가정 정원만들기'로 숲문화 운동 지속되길

기고

윤병선

숲속의전남
자문위원장(임학박사)



'(사)숲속의 전남'은 생활 속에서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숲 문화 운동을 선도하는 단체다. 다시말해 이 단체는 한 가정 정원 만들기, 숲 돌보미 참여, 나무 심고 가꾸기, 주민 교육 추진, 주민 포럼 개최를 통해 숲문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금 조성과 기업체나 개인 기부금을 통해 민간 주도 대표 숲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대 가정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전통적 가치관 중 하나다. 그런데 3대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점점 더 드물어지고,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대가족 문화가 약화되고 있다.

가정은 가족 간 유대감 강화, 노인 부양 및 돌봄 지원, 세대 간 지식 및 경험 공유, 전통 문화 계승, 경제적 지원 및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가 무너지고 인구가 감소해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

체 등에서 많은 시책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 '저출생대응기회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회부는 "교육과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가정 3대 가족정원 만들기' 행사는 3대가 함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 구조의 확산으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감 약화, 노인 부양 및 돌봄 지원의 어려움, 세대 간 지식 및 경험 공유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이 증가하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여 가족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3대가정 정원 만들기 운동을 숲속의 전남에서 시작했다. 올해도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10일 진도군 무궁화 동산에서 60가족 250여명이 참석해 600여그루 나무를 심었다. 지금까지 561가족 2112명이 참석해 3229그루 나무를 조부모, 부모, 손주들이 함께 정원을 만들고 나무심는 운동을 해왔다.

3대 가정 나무심기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 간 지식과 가치관

이 자연스럽게 전승된다. 대가족이 아니라도 3대가 함께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행사다. 3대가정 나무심기는 또한 노인 부양과 돌봄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노인 돌봄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사)숲속의 전남'은 9년 전부터 가족 사랑, 나라 사랑, 숲 사랑 운동, 즉 전남도와 함께 숲문화 운동을 실천으로 전남도의 1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한 도민에게 숲의 기능과 역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탄소의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나무 나눠주기 행사 뿐만 아니라 3대가정 나무심기 등 숲문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가정 3대 가족정원 만들기' 행사를 통해 3대가 함께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 노인 부양 및 돌봄 지원, 세대 간 지식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노인 부양 및 돌봄 지원을 개선하며, 세대 간 지식 및 경험 공유를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숲속의 전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숲문화 운동을 통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기대해본다.

@jni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전남일보 #jnibo